논어 3편 팔일 26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居上不寬，爲禮不敬，臨喪不哀，吾何以觀之哉！」

독음 · 자왈 거상불관 위례불경 림상불애 오하이관지재

쉬운 풀이(요약) ·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않고, 예를 행하면서 공경하지 않으며, 상을 당해서 슬퍼하지 않으면 무엇을 볼 만하겠는가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居 살 거 거 / 上 윗 상

不 아닐 불 / 寬 너그러울 관 관 / 爲 할 위 / 禮 예도 례 례

敬 공경할 경 경 / 臨 임할 림 림 / 喪 죽을 상 상 / 哀 슬플 애 애

吾 자기 오 오 / 何 어찌 하 하 / 以 써 이 이 / 觀 볼 관 관

之 갈 지 / 哉 비로소 재 재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